

사면으로서의 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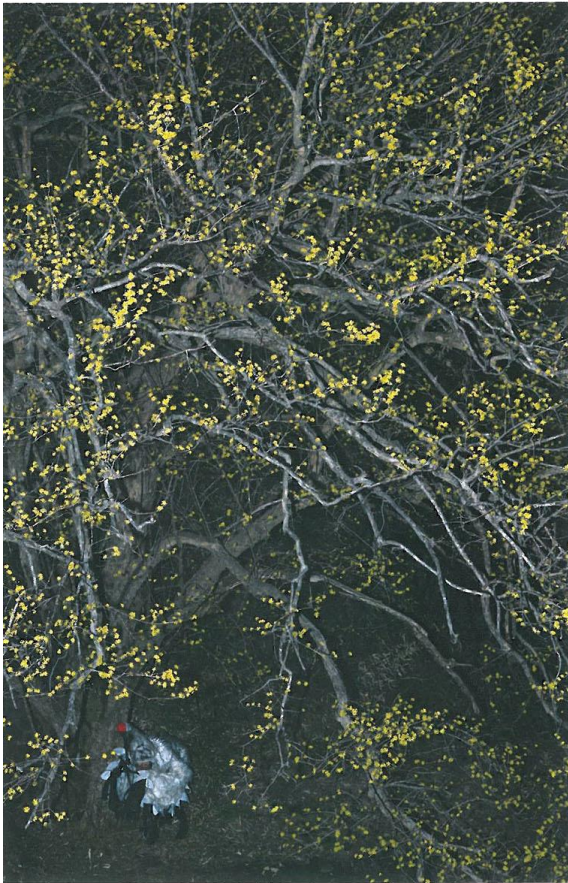
March, 2014 | 이슬비 에디터

page 1 of 8



# Contents

Vol. 350 / 2014.03



표지 · 작가 박찬경 (사진 · 차주용)

## 특별기획 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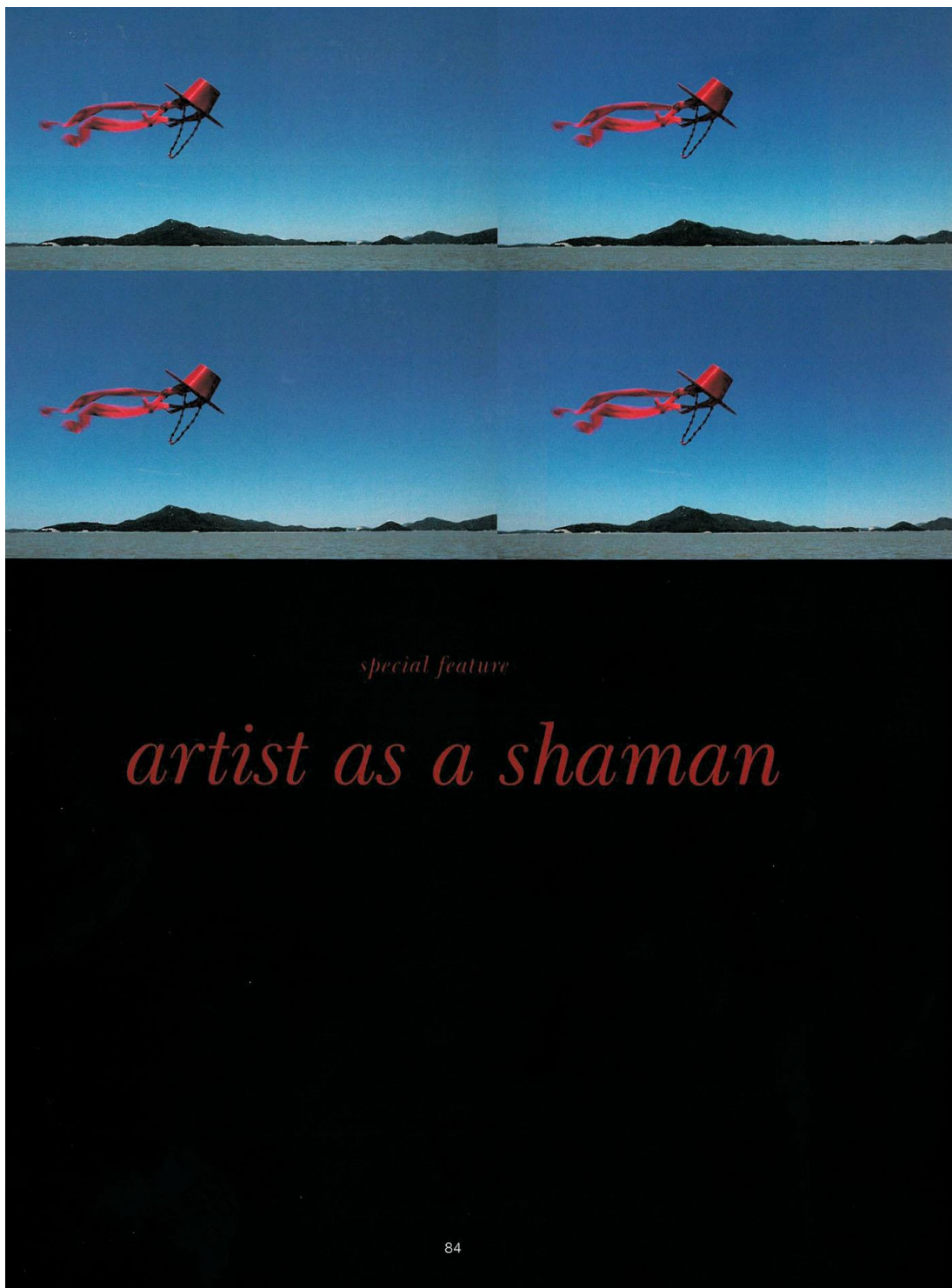
### 사면으로서의 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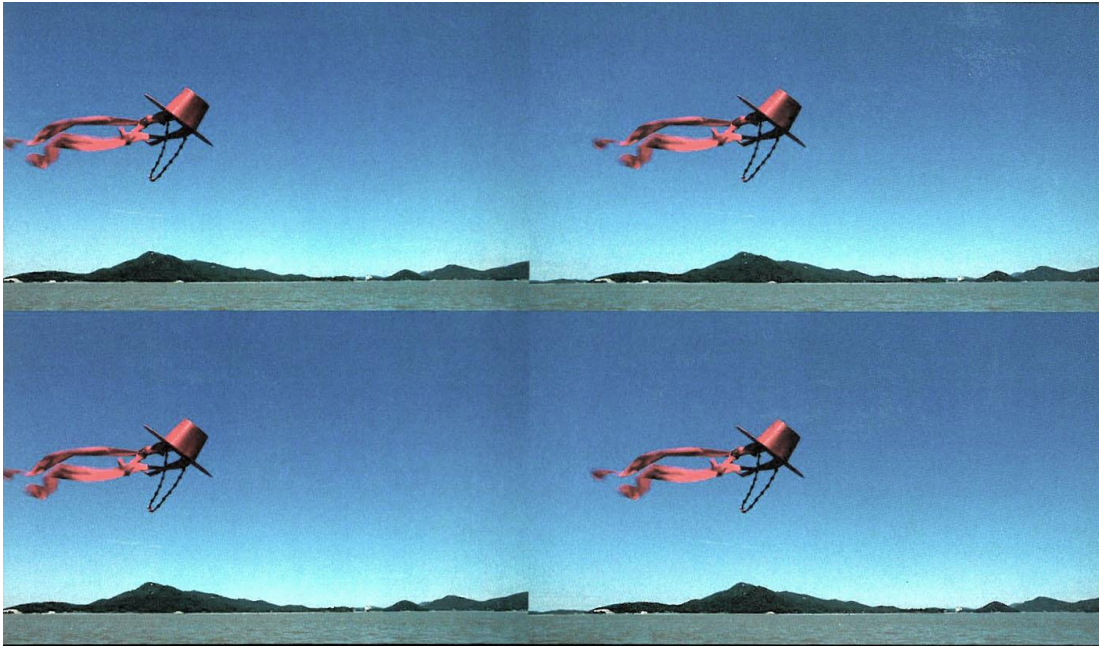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무속인, 김금화 민신을 다룬 미디어아티스트 박찬경의 영화 <만신>이 3월 6일 개봉한다. 사면을 뜻하는 무당 무(巫)를 파자하면, 하늘(一)과 땅(一)이 연결(工)되고, 그곳에서 사람들(人)이 춤을 춘다고 풀이할 수 있다. 예술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명화 단계 이전에 종교와 예술은 분리불가능하다. 원시예술은 주술적인 의미를 지녔으며, 예술가는 곧 사면으로서 영적인 기운을 불러들여 병든 공동체의 회복을 꾀하고자 했다.

한국의 경우 왜곡된 근대화로 인해 한국의 전통 문화, 신화, 전설, 무속신앙, 애니미즘 등과 같은 한국의 토착 문화를 바탕으로 한 신화적 사고는 그동안 현대적 삶과는 거리가 먼 미신 혹은 비이성적인 산물로 치부되며 부정적 대상으로까지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날 예술가들은 예술에 내재된 본래의 치유적 의미를 환원시켜 근대의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넘어서고자 한다. 이때 자연, 공동체, 판타지, 코스모로지 등에 대한 관심은 근대성의 위기 이후 예술가들이 꿈꾸는 새로운 상상력의 원천이자 지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작업은 기존 제도권에 대한 저항이자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성체가 공동체의 기능을 상실한 시대에 예술을 통해 공동체 삶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다. <월간미술>은 자신만의 고유한 창작을 통해 시대와 사회,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이시대 '영매(靈媒)'로서 예술가의 면면을 살펴본다.

오늘의 사머니즘과 감흥으로서의 정치\_김남수  
사면/리얼리즘 흠어짐과 한 몸의 미학\_김종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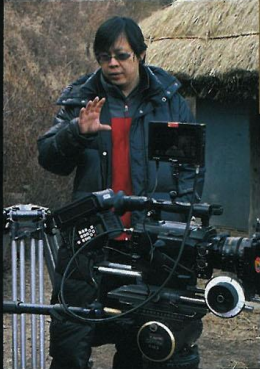


## 샤먼으로서의 예술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무속인, 김금화담신을 다룬 미디어아티스트 박찬경의 영화 <만신>이 3월 6일 개봉한다. 샤먼을 뜻하는 무당(巫)를 파자하면, 하늘(宀)과 땅(土)이 연결(工)되고, 그곳에서 사람들(人)이 춤을 춘다고 풀이할 수 있다. 예술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명화 단계 이전에 종교와 예술은 분리 불가능하다.

원시예술은 주술적인 의미를 지녔으며, 예술가는 곧 샤먼으로서 영적인 기운을 불러들여 병든 공동체의 회복을 꾀하고자 했다. 한국의 경우 왜곡된 근대화로 인해 한국의 전통 문화, 신화, 전설, 무속 신앙, 애니미즘 등과 같은 한국의 토착 문화를 바탕으로 한 신화적 사고는 그동안 현대적 삶과는 거리가 먼 미신 혹은 비이성적인 산물로 치부되며 부정적 대상으로까지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날 예술가들은 예술에 내재된 본래의 치유적 의미를 환원시켜 근대의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넘어서고자 한다. 이때 자연, 공동체, 판타지, 코스모로지 등에 대한 관심은 근대성의 위기 이후 예술가들이 꿈꾸는 새로운 상상력의 원천이자 지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작업은 기존 제도권에 대한 저항이자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성체가 공동체의 기능을 상실한 시대에 예술을 통해 공동체 삶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다. 《월간미술》은 자신만의 고유한 창작을 통해 시대와 사회,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이시대 '영매(靈媒)'로서 예술가의 면면을 살펴본다.





## 박찬경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1997년 금호미술관에서 첫 개인전 <블랙박스 내전 이미지의 기억>을 시작으로 뽀지아트스페이스, 미국 레프겐, 아틀리에 에르메스, PKM 갤러리, 독일 솔루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04년 에르메스미술상을 수상했으며,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양애>(2010)로 전주영화제 전국장편부문 대상, <파란만장>(2011)으로 2011년 배움문화재단 단편부문 황금곰상, 2011년 제4회 시체스컬라제 '새로운 비정' 부문 최우수 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 영화는 곳의 확장된 개념

냉점과 분단을 주제로 작업해왔는데 <신도안>, <피란만장>, <만산> 등 최근 작업들 지속해서 민속신앙과 무속을 다루고 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누구나 인생에 어려운 시기가 있듯이, <신도안>을 시작하기 전 몇 년은 생활도 고단하고 정신도 피폐했다. 물론 그전에도 종교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때는 절이나 산에서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았다. 신도안에 대해 조사하면서, 한국의 종교문화에 끼친 근현대사의 막강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전에는 북한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최대 타자라고 생각했는데, 전통신앙이나 무속도 그에 못지않은 우리 사회의 무의식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민속신앙과 무속은 한국의 근대성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시각을 제공한다.

김금화 만신을 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금화 만신은 먼저 심황민으로 이복에서 내림굿을 받은 거의 마지막 큰 무당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김금화 만신처럼 점 등에 뛰어내고 자태가 아름다운 분도 드물다. 그 무엇보다도 일제강점기 분당과 새마을운동을 지나면서 시대 변화와 가장 치열하고 직접적으로 만난 경우이며, 다른 어떤 무당보다도 그 역사를 의식하며 산 분이기도 하다. 새마을운동과 미신타파운동을 거치면서, 김금화 만신은 무속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살았다. 이 영화는 그런 그녀의 평생에 걸친 노력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굿-코린'이라고 언급할 바 있다. 이말의 의미를 설명해달라.

<만산>을 제작하다가, 1980년대 김인희 선생이 기록한 굿 비디오를 본 적이 있다. 이 영상을 보면, 굿이 완전히 코린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코린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는 사람들, 할머니, 아줌마, 아이, 환자들의 해방구이다. 해방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무당과 사람들이 함께 웃고 울고 춤추고 음식을 나누면서, 화해와 응시로 공동체를 다지는 것이다. 그래서 굿판에서는 다양한 굿기 타파가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는 그런 문화를 상상이 어렵다. 굿은 정치적 코린은 아니지만, 일제가 집중 감시했던 것처럼 문화적 통합력이 매우 강한, 권력이 충분히 싫어할 만한 공동체 문화였다.

<만산>은 기존의 단편 <그날>(2011)과 <갈림길>(2012) 두 편을 묶어낸 했지만 대중을 위해 더욱 친절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대중을 위해 친절하게 했다는 말은 좀 아폐가 있다. 왜냐하면 관객이 바보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관객은 작가의 잘난 척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 더 적절하겠다. 불필요하게 어렵지 않으면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작가의 어려움이자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

"미디어가 김금화 만신을 이용한 것이라면, 김금화 만신도 미디어화 된 것이다. 김금화에게 미디어는 다양한 무구 중 하나였다"라는 내용이 흥미로웠다. 무속과 미디어의 관계 좀 더 설명해달라. 그리고 미디어 작가로서 고민은 무엇이었나?

신령과 전기, 무선(wireless)의 미디어와 영매 사이에는 이미지의 깊숙한 연결이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현대의 온갖 무선 전파와 통화, 영상 등은 비가시적인 힘의 교류에 대한 인류의 오랜 열망이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와이파이에는 열력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정보통신기술이 비록 전쟁기술이나 사회통제를 위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기술 이전에 주술이 있었다는 것, 주술이 기술로 연결되는 면은 충분히 흥미로운 연구거리이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굿을 보지만, 거꾸로 굿을 영화로 확장한 것이라는 점을 관객이 생각했으면 했다. <만산>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설명에 그치는 과거 '재연'이 아니라, 드라마와 다큐가 어떤 살아있는 대화를 하게 하는 것이었다. 또 굿과 영화가 적극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영화적인 동기를 발명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장면에 김새론이 '갈림'을 받는 장면, 특히 김금화 만신, 나아가 한국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혹은 서울 산 처로 만든다는 설명이 중요한 것 같다.

마지막 장면에는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압축해서 담으려 했다. 그중에서도 이 영화가 가장 연약하고 외로운 소녀 무당 '냄세'에 대한 헌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온갖 구박과 따돌림을 받는 냄세가 마을 사람들에게 무당으로 공인되는 반전이야말로, 여성전축사가 승리사로, 무당에 대한 천대가 공경으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무속에 대한 우리 개념은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무당을 희화화하길 좋아하지만, 자신이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절집에 찾아가는 것과 같다.



영화 <만산> 스틸컷 104분 2013 (사진: ㈜옛나인필름 제공)

